

# 평택해수청, 평택·당진항 국제여객선 상반기 특별점검 추진

- 민·관 합동 ‘종사자 참여형 점검’을 통한 여객선 안전 위해요소 개선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상구)은 오는 4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 평택·당진항과 중국 노선을 운항하는 국제여객선 3척\*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국제여객선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뉴그랜드피스호(평택↔위해), 르자오 오리엔트호(평택↔일조), 오션블루웨일호(평택↔연태)

이번 특별점검은 해양수산부 주관의 해양수산시설 집중안전점검\*에 발맞춰 여객선 분야 점검과 병행하여 추진되며, 선사의 비상대응 능력과 자체 안전 관리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종사자 참여형 안전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 「재난안전법」 제32조의3에 따라 재난 예방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점검이며,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4.20.(월)부터 6.19.(금)까지 해양수산시설에 대한 집중점검 시행

평택해수청은 업계 현장 종사자와 △선교 및 여객구역, △선체·기관설비, △소화·구명설비 작동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선상에서 소화·퇴선 훈련을 실시하여 실제 비상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박배순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국제여객선은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만큼 철저한 현장 안전관리가 최우선”이라며, “다양한 관점에서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개선하여 여객선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책임자	과 장	박배순 (031-680-7220)
		담당자	계 장	김연수 (031-680-7227)
		담당자	주무관	정근우 (031-680-7226)